

사업비 339억원 확보...주민참여가 성공 열쇠

본게도 오른 목포 구도심 재생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 구도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재생수술’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곳에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총 1조2037억 규모로 이들 선도지역의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목포시의 사업유형은 ‘근린재생형’(일반 규모)으로 모두 14건에 총 339억원이 승인됐다. 이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봤다.

◇도시재생사업 뭐가 담겼나=민선 6기 들어 박흥을 시장이 펼치는 첫 사업이고 향후 민선 7기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박 시장도 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요 핵심”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열정이 모여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시가 국토부에 제출했던 활성화계획(안)에 따르면 ‘미중물 사업’ 10건을 비롯해 부처 협업사업 2건, 지자체사업 2건 등 14건의 사업이 담겼다.

미중물 사업 가운데 ‘유류 시설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사업은 목원동 일대에 산재된 공가(空家)를 리모델링해 ‘예술가의 집’이나 게스트 하우스로 조성하고, 호남동에 위치한 보해양조 본사내 별관(1964년 건립)을 ‘전통주 체험관’으로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차범석 거리, 김우진 거리, 마인게터 거리를 조성해 남포 소극장→차범석 생가→김우진

국토부 전국 12곳 사업 확정

보해양조 별관 전통주 체험관

목포오미 특화 장터 만들고

가수 남진 생가 기념관 건립

쾌적한 환경 개선과 함께

경제·문화적 기능 회복해야

기념비→마인게터 거리→게스트 하우스→보해양조 전통주 체험관→남진기념관→중앙 식료시장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포 오미(五味=민어·홍어·꽃게·갈치·낙지) 특화장터가 조성되고,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는 이벤트 및 축제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히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지원 및 경관관리 사업, 안전하고 정감있는 마을 조성사업, 사랑방 조성 및 노인 중심 마을기업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이어 총 60억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주차장 2개소, 공원 1개소,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사업으로는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과 ‘취약계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는 지자체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지난 1936년 건립된 가수 남진의 생가를 활용해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



대중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남진의 생가.

이다. 이 사업은 대중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은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남품되는 2월께 나올 전망이다.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만 남았다.

◇전문가가 말하는 사업추진 방향은=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단순한 의견제시 정도로 참여하고 관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 주민참여만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목포대 초청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 미시간 주 수들은 도시업이 성공하는 ▲시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하지 말고 ▲개개인이나 시민들이 나를 버리고 이웃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행정을 포함한 정치가 개입돼선 안 된다고 뜻을 밝혔다.

김종익 (사)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 대표는 “재생사업의 방향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쾌적하고 편리하고 살기좋은 공간으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문화적·경제적으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목포시 도시개발사업단 박옥주 과장은 “예를 들어 남진생가를 기념관으로 하자는 안과 게스트 하우스로 하자는 안 등 견해차가 커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집약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이 남아야 할 산”이라며 목포시·주민·상인회가 가장 하고 싶은 사업 1순위를 발굴해 이들 3개 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목포=임영춘·고규석기자 lyc@

“신뢰·책임·소통하는 의회상 정립”

목포시의회 올 첫 임시회 오늘 개최

목포시의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올미년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시정보고, 주요업무 보고, 일반 안전처리, 현직 활동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조성오 의장(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신뢰받는 의회,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해 책임을 다하는 의회,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목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시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정책 활동과 지원을 펼쳐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리후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의회 운영과 관련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며 더 낮은 자세로 민의에 바탕을 둔 현장중심의 의정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대양동 종합장사시설 명칭

‘목포 추모공원’으로 최종 확정

목포시가 대양동에 올 상반기 준공 목표로 건립중인 종합 장사(葬事)시설(조감도) 명칭을 ‘목포 추모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종합 장사시설의 통합명칭을 공모한 뒤 67개의 응모작 가운데 54개를 선정해 12월 8~17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시는 목포 하늘공원, 유달 추모공원, 목포 추모공원, 목포 추모향공원, 추모 나루공원 등 추천 수가 많은 공모작 5개 중 ‘목포 추모공원’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해 올해 준공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의 통합명칭으로 결정했다. 목포하늘공원은 우수작으로, 유달추모공원은 장려작으로 각각 선정했다.

‘목포 추모공원’은 지역의 대표성이 반영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과 상징성이 담겨 있으며 친근하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목포시 종합 장사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민·관 공동 추진사업으로 대양동 764·11번지 일원 부지 6만1027㎡에 조성중이다. 공공부문에는 화장장(3692㎡)과 시립 봉안당(400㎡), 유택동산을, 민간부문에는 장례식장(3층)과 민간 봉안당(3층)을 각각 건립한다. 현재 운영중인 시립 화장장은 폐쇄되며 웰빙공원으로 조성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영광·진도·완도 등 무인등대 5기 신설

신안, 영광 등 서남해상에 무인등대 5기가 신설된다.

11일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서남해안을 오가는 선박 항해 안전을 위해 올해 77억원을 들여 항로표지시설 확충사업에 나선다. 신안·영광·진도·완도 해상 수중암초 위에 등표 등 무인등대 5기를 신설한다. 낡은 등대시설 4개소도 개량한다. 특히 한반도 최서남단 가거도 등대에서 마을임구까지 2.3km의 도로 폭을 4m로 넓히는 공사도 오는 4월 완공 예정으로 조만간 시작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오는 2017년까지 총 14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질 목포 원도심 일대 전경.

고품격 펜션 신축 매매

연 17% 고수익
명품 풀빌라

- 전남 최대 관광도시 여수 돌산 앞 바다 위치
- 5년 장기 임대 확정(임차인 확정 대기중)
- 월차임 월 810만원(연 9720만원 수익)
- 매매가 8억 8천 5백만원(융자 50% 가능)
- 실 투자금 4억4천5백만원(수익률 17% 확정)

동영공인중개사사무소
H.010-2886-0440, ☎385-701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유흥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정가, 아적장 주점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